

The (Sad) History of Teacher Preparation Revisited: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History of Teacher Preparation in the US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¹⁾

Chung, Baul²⁾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ociate Professor)

< ABSTRACT >

In this interpretative essay, the author argues for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history of teacher preparation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teaching. Drawing on historical-sociological analysis on teacher preparation in the U.S. and S. Korea, the author reveals that the historical reality of teacher preparation is more complex and ambiguous rather than a sort of linear evolutionary development, which is irreversible march of progress towards professionalization. The author's thesis is that researchers need to effectively disrupt the often ahistorical and uncritical ways the reformers often frame present-day challenges and problems within teacher education by engaging in historical methods and analysis in ways that better ground and contextualize them.

Key Words : Teacher education, teaching profession, history(histography), institutional change, professionalization

1) This paper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search grant.

2) Corresponding Author: Chung, Baul,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96 Seocho Joongang-Ro, Seocho-Gu, Seoul, Korea, 06633 / E-mail: paulcpu@snue.ac.kr

교사양성교육의 (슬픈) 역사 재조명: 미국과 한국 교사양성기관의 제도적 변천 과정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¹⁾

정바울²⁾ (서울교육대학교, 부교수)

< 요약 >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의 교사교육 제도적 변천 과정을 초등교원양성에 주목하여 재조명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교사양성체제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역사사회학적, 사회사적 분석틀에 착안, 선택적 문헌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미국과 한국의 교사교육의 제도적 변천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Labaree(2020)의 ‘원칙에 입각한 양가성’을 견지하여 대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의 사범학교→교육대학→종합대학교로 대표되는 교사교육의 제도적 변천 과정은 비가역적이고 필연적인 진화 과정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역사적인 우연에 더 가까웠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해 비록 교사교육기관의 제도적 지위는 상승(upgrading)했으나 교사양성과 교직은 주변화되었고 약화(downgrading)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표면적으로 우리도 미국과 유사하게 사범학교→교육대학(2년제)→교육대학교(4년제)으로의 선형적 진화 양상을 보이지만, 이는 교사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체계적 노력의 결과였다기보다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추진된 임시적이고 급진적인 제도적 변위, 치환에 가까운 과정이었다. 또한 미국과는 달리 목적형 체제로 유지되어 종합대와의 ‘불편한 동거’로 인한 대학 내부에서의 교사교육의 주변화 경향은 우회할 수 있었으나, 사범학교, 2년제 교육대의 경로의존적 관성과 만성적인 유산을 효과적으로 단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교사교육의 제도적 변천과정을 비가역적, 필연적 진화로 환원하려는 진부하고 편향된 관점에서 탈피하여 보다 균형 있고 총체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종합대로의 통합 위주 초등교원양성체제 개편 시도 속에 은폐된 정책 담론의 균열과 창조적 해체를 통해 개혁의 성급한 추진을 교란하여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교사교육, 교직, 역사, 제도적 변천, 전문성

1) 이 논문은 서울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2) 저자: 정바울, 부교수, (06639)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울교육대학교 / E-mail: paulcpu@snu.ac.kr

논문투고일자: 2022. 2. 4 / 심사일자: 2022. 2. 5 / 게재확정일자: 2022. 2. 14

I. 서론

교사교육의 역사는 ‘동경과 배신’의 역사이다(Herbst, 1989).

“사회학자로서 나는 일말의 주저함이나 후회없이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 범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꼬리표는 상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교사양성대학은 이에 딱 들어맞는 사례이다.” (Labaree, 2020, p. 15)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초등양성체제가 어떻게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 문제의식은 최근 교대를 종합대에 통합하는 형태로 교사양성체제를 개편하려는 개혁 시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래로 교대를 종합대에 통합하여 개편하려는 일련의 논의와 시도들은 왜 반복적으로 출몰하였고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초등양성체제가 어떻게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지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교사양성기관의 독특한 진화 경로상의 특징에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초등교원양성기관은 여러 선진국의 교사교육의 전형적인 제도 변화의 경로인 ‘사범학교→교육대학→종합대학교’라는 변천 궤도에서 이탈하여 ‘교육대학교’라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는 것은 흥미로운 퍼즐이었다(Lee, 2021; Park, 1997).

이 독특한 제도적 변천 과정을 위해서는 우선, ‘사범학교→교육대학→종합대학교’라는 전형적인 제도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 이해를 토대로 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변화양상과는 다른 비동형화(non-isomorphic)된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몇몇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통합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일반적, 규범적인 주장들은 많이 제시되었지만, ‘사범학교→교육대학→종합대학교’로의 제도적 변천 과정에 대한 면밀한 실증적, 역사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너무나 자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교사양성체제의 통합을 주장하는 개혁가들의 입장과의 정치적, 이념적 친화성(affinity)으로 인해 이 변천 과정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간과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사범학교→교육대학→종합대학교’로의 제도적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기 위해, 이러한 변천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교사교육, 특히 초등교사양성의 변천사를 다룬 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사사회학적 관점에 착안하여 미국 교사교육의

제도적 변천사를 분석한 Labaree(2020)의 역사사회학, 사회사적 연구 분석틀에 착안하였다. 그는 이 변천과정이 비가역적이고 선형적인 교사양성의 개선과 교직의 전문화를 향한 전승 행진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모호한, 실제로는 역사적 우연에 가까운 전개 과정이었다고 하는 독특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게다가 이 과정은 사회적 통념과는 다르게 역설적이게도 교사교육을 주변화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온 과정이라고 분석하였다.

교사양성기관의 제도적 변천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이해는 제도적 변천 과정을 비가역적, 필연적인 진화의 결과이자 개선으로 환원하려는 진부한 기능주의 일변도의 편협한 역사관과 의도적인 무지에서 탈피하여 보다 균형있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리얼리티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각은 본 연구의 관심사인 초등교육양성의 변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통찰을 던져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통해 90년대 말부터 주기적으로 출몰한 종합대 통합을 통해 초등교원양성체제를 개혁하려는 시도 속에 은폐된 정책 담론과 프레임의 균열 및 창조적 해체를 통해 일차적으로 오도된 개혁의 성급한 추진을 교란하고(Horsford & D' Amico, 2015; Lee, 2021),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교대와 사대의 통합 논란을 극복하여 덜 편향되고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범학교→ 교육대학→ 종합대학교’가 어떤 과정으로 변천되었는지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오래된 미래’를 소환하여 해석적 재구성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교사교육의 제도적 변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사양성기관의 변천사를 미국 교사교육의 변천 과정과 대비시켜 우리나라 초등교사양성의 역사적 변천을 관통하는 주요한 특징에 주목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우선, 본 논문의 이론적 분석틀이 된 교사교육의 역사사회학적 분석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II. 이론적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역사사회학적 접근에 착안하여 교사교육의 역사의 재조명을 모색하였다. 역사사회학적 접근은 사회적 제도로서 교사양성기관을 규정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의 기원과 출현, 변천과정을 추적하고 설명하는 관점이다(Labaree, 2020; Ogren, 2013). 특히 이 접근에서는 개별 사례에 주목하기보다는 교사양성기관 전체를 관통하는 규칙성과 제도적 원형에 내장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와 유인가에 주목하여 교사양성기관의 제도적 변천과정을 추적하려고 한다(Labaree, 2020). 교사교육의 역사를 분석함에 있어 역사사회학적 접근은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접근으로부터 탈피하거나 이를 보완하려는 접근을 모색한다(Ogren, 2013). 앞에서 살펴 본 교사교육의 제도적 변천사를 전문화의 기획으로서 일방적, 선형적, 비가역적인 미래로의 행진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전형적인 기능주의적 역사관을 잘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도 교사교육의 역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사교육사를 연구하는 최근 학자들은 이와 같은 기능주의 일변도의 시각에 입각한 교사교육의 역사 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Ginsburg, 1987; Ogren, 2013; Zgaga, 2013). Ginsburg(1987)는 교직과 교사교육의 역사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전문화를 위한 기획’으로 환원하여 기술하는 것은 교사교육의 역사를 둘러싼 서사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역사 연구 속에 계급과 계층, 젠더 간의 갈등, 투쟁, 저항, 권력 등과 같은 주제는 간과되기 쉽다고 비판하였다. Herbst(1989)는 계층과 젠더, 특히 교직의 여성화와 인종 문제에 착안하여 초기 사범학교로부터 교육대학으로의 이행 과정을 고등교육기관 내 서열과 지위 획득을 위해 전문화라는 미명하에 당시 대다수가 여성이었고 노동자 계층 출신이었던 교사들을 배신한 채 교직과 교사양성이라는 사명을 주변화하고 약화시켜 온 역사라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Labaree(2020)는 지위 획득과 지위경쟁이론에 착안, 미국 고등교육내 교사교육기관의 만성적인 열등한 지위와 이로 인해 초래된 결과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Ogren(2005)은 역사사회학적 관점에 착안하여 미국 교사양성기관 가운데 가장 소외되었고 간과되었던 사범학교(normal school)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한 기념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Ogren(2021)은 후속하는 논문에서, 미국에서 종합대학 내 사범대학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급기야는 많은 연구중심대학에서 앞을 다투어 사범대학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범학교에서의 교사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 추구가 비록 희석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사범대학이 지난 100여년간 담당해 온 소외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과 고등교육의 공익에의 기여라는 사범학교의 전통까지 함께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간절한 열망과 동경속에서 종합대 내로 편입된 미국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초라한 현주소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최근 국내에서도 교육역사사회학에 대한 연구와 서적이 소개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 및 학교 분야에서 연구물들이 출간되기도 했으나(Kim, 1999), 아직까지 교사교육의 역사를 역사사회학적 관점에 입각해 분석하려는 연구는 드물다고 하겠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론은 주제에 입각한 선택적 문헌분석 기법이다. 자료의 수집과 선별은

Labaree(2020)가 제시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교사교육의 제도적 변천사를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사회사(social history)와 역사사회학적 렌즈로 조명한 문헌들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선별, 발췌하여 본 논문이 주장하려는 독특한 해석과 논증을 입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특징이나 사례보다는 교육대학을 관통하는 규칙성을 발견하는 데 주목하여 초등교사양성기관의 변천을 역사사회학적 접근법의 범주적 특징에 착안하여 살펴보았다(Labaree, 2020). 연구의 시퀀스는 먼저 미국 교사교육의 제도적 변천 과정을 분석한 다음, 이러한 특성과 수렴되거나 대비되는 측면을 다룬 특성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다룬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과 서적들을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역사적 변천 단계별로 작성된 교원양성체제 개편 보고서, 정부 문건, 신문기사들도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자료의 해석과 분석에 있어서는 Labaree(2020)가 제안한 ‘원칙에 입각한 양가적인 입장(disciplined ambivalence)’을 견지하려고 하였다. 한편으로, 교육대학의 변천 과정에 대해 미화하거나 낭만화하는 관점을 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Fraser, 2007; Null, 2009; Ogren, 2013), 다른 한편으로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서 교대가 맡겨진 요구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오면서도 비판, 조소를 받았고, 또 만성적으로 열등한 지위의 저주라는 한계로 인해 주변화와 냉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궤적을 그리며 존속해 온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Labaree, 2020). 이러한 양가적인 입장을 통해 적어도 덜 편향적인 분석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역사사회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미국과 한국의 교사교육의 변천사를 재조명해 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천 과정의 이면에는 어떠한 변화의 동인과 기제가 작동했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장에서 미국, 한국의 교사교육의 제도적 변천 과정의 전반에 걸쳐 요약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교사양성체제를 둘러싼 주된 역사적 변화 국면에 주목하여 이를 제도 변화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대비를 통해 수렴되는 지점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분석, 제시할 것이다.

1. 미국 교사교육기관의 제도적 변천 : 제도적 상승, 전문적 하강의 역사

가. 사범학교의 착상과 확산

사범학교는 프랑스의 사범학교와 당시 프러시안 사범학교 모델로부터 영감을 받은 미국 교육지도자들에 의해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1800년대 초반에 메사추세츠주 렉싱턴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미국 중서부와 외곽으로 퍼져 나갔다(Ogren, 2013). 사범학교는 당시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고등교육의 지형상에서 후발주자였다. 당시 사람들은 사범학교는 ‘대학답지 못한’, 특권이 부족하고 학문적으로 낮은 지위와 평판을 갖는 것으로 여겼다(Ogren, 2005). 이는 학생의 대다수가 여성이었던 점, 또 노동자 계층, 유색 인종 출신이었던 학생의 구성상의 특징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두고 Goodlad(1999)는 사범학교의 착상을 선천적인 결함을 가지고 매우 비우호적인 상황으로 떠밀려진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로 인해 사범학교는 Herbst(1989)가 그의 저서 ‘And Sadly Teach’ 에서 주장하였다시피, 교사교육의 위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기관’ 들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을 책임지게 되었다.

점차 사범학교가 발전하게 되고 빠르게 팽창하게 되면서¹⁾ 사범학교는 ‘교사양성’ 이라는 애초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와는 다른 굴절된 목적을 수행하게 되었다. 초기에 사범학교 설립자들은 사범학교를 효과적인 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실천적 기술을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점차 광활하게 대초원이 펼쳐진 작은 시골에 흩어져 있었던 대부분의 사범학교들은 당시 특권을 가진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지역 주민들이 사는 바로 그곳에서 제공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²⁾. 사범학교는 이들에게 단순히 교사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곳 그 이상이었다. 즉 당시에 사범학교는 많은 사람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범학교가 지역 내 유일하고 저렴한(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고등교육기관인 소위 ‘만인의 대학(people’s university)’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범학교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였다. Herbst(1989)는 이러한 측면에서 사범학교는 고등교육의 선구자라고 묘사하였고, Ogren(2013, 2021)은 소외된 계층에게 공공선으로서의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널리 확장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 학생들은 협소한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단일한 직업 경로로 내보내는 단일 목적의 학교에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Labaree, 2020). 학생들은 다른 대학들에서처럼 사범학교에서도 전통적인 미국 방식으로 “개인의 전공 선택권을 최대한으로 제공하고 광범위하고 매력적인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1) 1865년과 1890년 사이에 주립 사범학교의 수는 15개에서 103개로 증가하였다(Labaree, 2020). 사범학교의 급속 팽창의 이면에는 사범학교가 생존을 위해 다양한 요구에 타협하게 되면서, 부분적으로 중등학교, 개방 대학, 교사양성기관의 다양한 기능들을 충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Fraser, 2007; Herbst, 1989).

2) 당시 대부분의 주립대학, 농학계열, 공학계열의 대규모 대학과 연구중심대학들은 중심적인 도시나 주도와 같은 곳에 형성되어 발전하였다(Labaree, 2020).

접근기회를 제공해 주는 교육을 원했다(Labaree, 2020, p. 36).” 이러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서, 사범학교의 정체성의 본질, 이탈, 혼란 상태가 초래되었다. Herbst(1989)에 따르면 당시 사범학교 학생중 교직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평균 출석학생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 했다고 하였다(Labaree, 2020, p. 37). 당시 졸업생들의 아주 소수(30% 미만)만이 실제로 교직으로 진출했다고 기록을 통해 분석하기도 하였다(Ogren, 2013).

사범학교의 발전 역시도 미국 고등교육의 위계화, 계층화된 지형과 그 자장(磁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오히려 교사양성기능의 계층화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초기 사범학교의 지도자들조차도 초등교사를 양성과 같은 낮은 수준의 과업은 되도록 외면한 채, 위계화된 교사양성 구조속에서 단기 교원 양성소에 맡긴 채 사범학교에서는 보다 위신있고 더 많은 명예와 영향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한 중등교사나 행정가, 그리고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를 선호하였다(Herbst, 1989; Labaree, 2020). 이러한 교사양성의 위계 사다리에서 초등교사 양성은 심지어 사범학교로부터도 배신당한 채, 남아있는 여성과 노동자 계층 출신의 사범학교 졸업생들만이 Herbst(1989)의 책 제목에서처럼 초등학생들을 ‘그리고 슬프게 가르치게 되었다.’

나. 사범학교에서 교육대학으로의 승격

앞에서 미국 교사교육기관의 제도적 변천은 마치 역사적으로 경계가 명확하고, 제도적 차원에서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절적인 모습의 제도적 치환 또는 변위(displacement)의 변화양상을 띤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역사적 리얼리티는 이와는 달리 오히려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복잡한 이행의 과정이었다(Labaree, 2020). 사범학교는 1890년대에 교육대학으로 변경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범학교가 팽창되면서 지역 내 ‘만인의 대학’ 이 되었고, 사범학교들은 점차 일반 학문과 전공 강좌와 프로그램의 제공을 확대하였다.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매력도가 커짐에 따라 사범학교들은 입학 요건으로 고교 졸업장이 요구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1900년대까지 사범학교는 전문대학과 유사해지다가, 1910년대 이후에는 2년제, 3년제, 4년제 교육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빠른 변화 과정을 잘 형상화하는 지표로 1920년대와 1933년 사이에 주립 사범학교의 수는 170개에서 66개로 감소했고, 주립 교육대학의 수는 46개에서 146개로 증가하였다(Labaree, 2020). 1940년대 이르러서는 사범학교라는 용어는 조용히 퇴장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이행은 실제로는 1900년대 이전부터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진행되었다(Labaree, 2020). 사범학교들로부터 대체로 교명을 변경한 형태로 발전한 교육대학들은 1960년대 이래 다시 다목적 학부대학과 지역내 주립대학교로 발전하게 되면서 짧은 제도적 생을 마감하였다(Ogren, 2013).

사범학교가 교육대학으로 변경되면서 교육대학의 지도자들은 더더욱 낮은 지위의 초등교사보다는 중등교사, 특히 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려는 것에 박차를 가하였다(Ogren, 2013). 한편, Herbst(1989)는 이와 같은 이행 과정을 명실상부한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과 투쟁의 과정과는 다소 다른 젠더(gender)와 교직의 여성화 관점에서 이 과정을 재조명하였다. 사범학교가 교육대학이 된 이면에는 전문화를 위한 차원으로 표방하였지만 당시 상황에서 교직의 지나친 여성화를 문제로 인식한 사범학교 지도자들과 졸업생들의 문제 인식이 있었고, 보다 더 많은 남학생을 유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남성 교육행정가들과 지도자들은 사범학교가 지나치게 교육, 교수법 지도에 치중한다는 불만을 토로하였고, 전문화를 가르치는 것과 교수학습에만 치중하는 것에서 탈피하고 보다 더 연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재편할 것과 행정가 양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려고 하였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르치는 일에는 무관심했고 소홀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대다수가 여성들이었던 초등교사들의 이해에 배신하는 방식이기도 했다(Gitlin, 1996; Ogren, 2013). 이러한 접근은 고등교육 지형에서 교육대학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사범학교와 교육대학 본연의 사명이 과편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Herbst(1989)는 교사양성의 역사에는 이처럼 언제나 전문화를 둘러싼 ‘양가성(ambivalence)’이라는 서사가 감싸고돌고 있다고 묘사하였다.

다. 지역 내 주립대학교로의 변신

사범대학은 교육대학과 다목적 학부대학을 경유하여, 1960년대 이래로 종합대학교 내 단과대학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Labaree(2020, p. 40)는 교육대학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인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주민들은 사범학교의 팽창과 후속된 주립대로의 승격으로 지역 내 고등교육에 대한 보다 용이한 접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입법가들은 세금 사용에 대해 선거권자들이 환영할 만한 정치적 축복과도 같은 의제를 갖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저렴하게 교사양성 교육과 동시에 대학교육의 이점(학사학위, 제도적 위신, 그리고 광범위한 직종에 대한 접근성 등)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교사의 경우, 대학졸업장이 교직에 입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적 여건을 대변하게 됨에 따라 상징적 차원에서 지위가 격상된다는 것을 뜻했다. 교사교육자들은 겨우 전문학교나 직업학교의 강사에서 명실상부한 대학교수와 변모된 위풍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대학 측에서 볼 때 교사양성대학은 대학 공급 과잉 시대에 많은 학생 정원을 확보하여 돈을 짜내기 위한 돈 줄(cash cow)이었다.”

교육대학으로부터 지역 주립대학교로의 변형(metamorphosis)은 명실상부한 거대한 진전

이자, 교사교육의 개선 과정의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범학교에서 교육대학으로, 다시 종합대학교의 내부로 교사양성교육이 통합되는 것은 교사양성기관을 둘러싼 기능적 위계화 양상이 이제 대학 내 단과대학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내적인(internal)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Darling-Hammond, 2010; Labaree, 2020). 이 결과 교사양성은 종합대학 내 학문적 위계에서 주변적 지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대학의 낮은 지위는 교육대학이 전문가 양성이라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 보려고 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고, 보다 내실 있는 현장 중심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강화하려는 시도들을 방해하였고 좌절시켜 왔다(Labaree, 2020). 또한 낮은 지위 문제는 교사양성대학에 대한 외부의 개혁과 공격에 더욱 취약해지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 교사양성기관의 제도적 변천에 관통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시장주의적 고등교육체제의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하겠다. 시장의 지배적 영향은 강한 학생 의존성, 중앙 정부 통제의 미흡, 그리고 대학의 공급 과잉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Labaree, 2020).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교사양성기관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시장 경쟁 원리하에 교사양성이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면서 교사양성기관의 구조는 더욱 더 복잡해지고 위계화되는 양상을 띠었다(Labaree, 2020). 체제의 승격과 제도적 통합 위주의 접근은 이러한 위계화된 구조하에서 교사양성기관들은 제도적 승격, 기관 간 통합, 합병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지위 획득을 위한 각축전에 주력하는 구조적, 체제적 변화에 치중하면서 정작 전통적 교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 교육과정, 그리고 방법 등을 내실 있게 개선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Ogren, 2013). 그리고 초기의 교사교육기관들간의 지위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교사교육이 종합대학교 내 단과대학 속으로 등지를 틀게 된 이후부터 종합대학교 내 단과대학들 간의 내적 경쟁과 갈등으로 이전되었다(Labaree, 2020).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변이의 과정에서 미국 교사양성기관들 스스로가 열망하며 추진했었던 일련의 제도적 승격과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라는 이름 하의 고등교육 위계상 지위 격상속에서 교육대학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져 갔다. 이로 인해 예비교사의 양성은 점점 더 주변화되고, 약화되었으며, 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변해갔다. 이것이 바로 Herbst(1989)가 ‘동경과 배신의 역사’ 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던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결과들이었다(Labaree, 2020).

2. 한국 교사교육기관의 제도적 변천: 급진적, 압축적 제도적 변위의 역사

우리나라 교사교육기관의 변천사도 미국과 유사하게 제도적 승격의 과정을 경유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1820년에 설립된 최초의 사범학교가 1900년대 초반에는 교육대학으로, 다

시 다목적 학부대학을 경유하여 1960년 이후로는 지역 주립대학교로의 100년이 넘는 길고 험난했던 제도적 진화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전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Lee, 2021). 우리나라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제도적 변천 과정의 대강은 일제 강점기에 설립된 이래 해방 이후까지 유지되어 온 사범학교를 거쳐, 1960년대 군부 세력에 의해 사범학교가 2년제 교육대학 체제로 개편되었다가 과정을 거쳐, 1980년대에 다시 4년제 교육대학교 체제로 승격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미국 교사교육의 제도적 변천 과정에 착안, 우리나라의 교사양성기관 가운데 특히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사범학교에서 2년제 교육대학으로의 개편’ 과 ‘2년제 교육대학에서 4년제 교육대학교로의 승격’ 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두 차례에 걸친 주요한 ‘제도적 변천 과정’ 상의 특징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가. 사범학교로부터 2년제 교육대학으로의 개편

우리나라 근대 초등교원양성기관의 근원은 1895년에 설립된 한성사범학교라고 할 수 있다. Park(1997)는 한국근대교원교육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초등교원 양성 제도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정착되게 되는데 해방 이후에도 그 제도적 특성이 그대로 존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950년대를 거치면서 초등교원은 고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양성하도록 하고, 중등교원 양성은 사범대학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확립되었다. 이는 철저한 준비와 근본적 개혁으로의 청사진 하에 이루어진 설정이라기보다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격동의 과정과 전후 국가 사회 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초등교육이 의무화되고 일본인 교원이 대량으로 탈출하게 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부족한 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전략에서 빚어진 대응이었다 할 수 있었다(Lee, 2021).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1945년 패전 이후 중등교육 수준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를 폐지하는 대신에 대학 수준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또 자격증이 정하는 소정의 이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반대학에도 교원양성을 개방하였다. 종래의 사범학교가 독점적이고 폐쇄적이라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교사를 양성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개혁” 이었다(Lee, 2021, p. 229).

고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를 2년제 초급대학 수준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사범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만으로는 초등학교 교원이 되는데 불충분하다는 논의들이 당시 문교부 예하 교육특별심의회, 전국사범학교 기관장들, 교육계 각계 각층에서 다각적으로 제기되었다(Lee, 2021; Park, 1997). Park(1997)는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5·16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게 된 혁명 정부도 이를 원안대로 받아들여 정치적인 격변기 와중에서도 무리 없이 추진되어, 1961년 9월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에 의해 ‘2년제 교육대학’이 채택되어, 1962년 3월 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사범 학교가 초급대학인 교육대학으로 전격 격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Lee, 2021). Lee(2021, p. 230)는 “이는 우리나라 초등교사 교육 역사에서 획기적이며 중요한 발전”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교육대학 설립 이후에도 초등교원 부족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당시 문교부는 임시 교원양성소 규정을 만들어 초급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18주간의 단기 교원양성과정을 수료하면 준교사 자격증을 주어 교원으로 임용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임시 방편식의 조치는 교직에 대한 사회 일반, 그리고 교원, 그리고 행정가들로 하여금 교원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저하시키고 초등교원의 열등한 지위라는 만성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정부는 비록 사범대학을 폐지하고 보다 격상된 교육대학을 설립하기는 했으나 교직을 전문화하려는 기준과 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는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었다(Park, 1997).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대학의 매력과 초등교직으로의 미약한 유인체계로 인해 교육대학의 경우 설립 초기인 1960년대 초에서 196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학에서 정원 미달 현상에 직면하기도 하였고, 동시에 현직 교원의 이직률이 급증하기도 하였다(Park, 1997). 교사양성기관의 착상과 제도적 초기 변천 과정에서 빚어진 이와 같은 특징은 Labaree(2020, p. 15)가 예리하게 지적한 것처럼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것, 범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낙인은 오래 남는 상처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변천 과정은 이에 잘 부합하는 사례였다. 이 과정에서도 앞에서 제시한 Herbst(1989)가 지적한 교사양성기관의 역사를 둘러싼 ‘양가성(ambivalence)’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에서 살펴볼 교육대학의 초급 2년제에서 4년제 대학교로의 승격의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나. 2년제 교육대학에서 4년제 교육대학교로의 승격

1962년 사범학교에서 2년제 초급대학인 교육대학으로 승격된 지 다시 약 20여 년만인 1981년에 교육대학은 2년제 초급대학에서 명실상부한 4년제 대학교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정권을 잡게 된 신군부의 비상조치의 일환이었던 ‘7·30 교육개혁 조치’에 의해서였다. 7·30 교육개혁의 설계자이자 주역의 일환으로 참여했던 Jung(1991, p. 69)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대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생각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었다. 구 사범학교 수준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5·16 군사혁명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2년제 교육대학으로 한번 탈바꿈하고, 이번에 국가비상대책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째 변신을 하게 된 것이

다. 이와 같이 초등교원양성기관은 언제나 비상대권을 쥔 한시적인 권력기구에 의하여서만 승격이라는 예우를 받아온 (슬픈) 역사를 갖고있는 것 같다.”

Park(1997)은 교육대학 4년제 승격이 실제로는 교육대학이 2년제로 개편되던 해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에 2년제 교육대학은 주로 재정적인 이유로 인한 임시적이고 과도기적인 형태일 뿐이고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초등교원양성도 중등교원양성처럼 4년제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개진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년이 넘도록 이러한 요구에 무관심으로 대응하였고, 정작 급작스런 권력 이동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군부 세력이 대국민 선심용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되었다(Park, 1997). 특히, 교대의 4년제 승격은 체계적인 논의와 준비 없이 급격하게 추진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남겼다. 초등교육을 위한 교사교육과정 개발, 교수 충원 및 기존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 등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급하게 승격을 추진한 것은 어찌면 패착이었다. 성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체계적이지 못하고 분절적인 교육과정, 평범하고 학문적으로 취약하고 순응적인 교수진 등으로 인해 교육대학은 일반인의 인식 속에 대학답지 않은 대학, 직업전문기관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게 되었다. 2년제에서 4년제가 되고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일반인들과 심지어 교사양성기관의 관계자들에게 교육대학은 여전히 2년제 대학인 것으로 착각되곤 했다(이는 2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넘어 Park(1997)와 Lee(2021)의 개인적 고백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 또한 사범학교의 문제로 제기되었던 대학답지 못한 고등학교와 유사한 대학 운영상의 특징이라든지 또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교육대학 문화로 인한 좁고 편협한 인간관계 문제는 2021년까지도 여전히 조롱 섞인 조소의 대상이 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이는 교육대학의 심각한 관성과 변화에 대한 보수성과 완고함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 사회학적 관점에 착안한다면 Labaree(2020)가 지적했듯이 교대가 오랜 시간에 걸쳐 낮은 지위를 가지며 발전해 온 탓에 각인되게 된 ‘열등한 지위’ 라는 낙인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기는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의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래된 지위 박탈의 역사와 만성적 열등한 지위의 저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교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지 못한 채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공격에 취약해진 채 종종 이상적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역사를 갖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교사양성기관의 제도적 변천상에 나타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교사교육의 제도적 변천사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 교사양성기관의 역사적 변천과정도 사범학교→ 2년제 교육대학→ 4년제 교육대학교로의 발전하는 제도적, 선형적 이행 과정을 경유했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평행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하지만 제도적 변천 과정에서 미국과는 달리 교육대학에서 종합대로의 통합의 궤적을 따르지 않

는 대신, 독립된 교원양성기관으로 존속되어 발전했다는 것은 흥미 있는 대비라고 하겠다. 또한, 미국 교사교육의 제도적 변천 과정은 1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후발주자였던 교사양성기관이 고등교육기관들 틈에서 분투해 온 경쟁, 도전, 갈등, 역사적 우연으로 점철된 험난한 역사였고, 이 속에서 교사양성기관들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생존해야 했던 제도적 진화 과정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교사양성기관의 제도적 변천 과정은 오히려 이러한 과정이 상당 부분 생략된 채 외부의 강력하고 급진적인 개혁 세력에 의해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추진된 ‘제도적 변위 또는 치환’의 양상을 띠는다고 할 수 있다(Lee, 2021; Park, 1997). Lee(2021)는 이러한 변화 과정상 특징에서 발생하는 ‘시차’로 인해 우리나라 교사양성기관의 경우, “사범학교가 2년제 대학으로 바뀌었다고 고등학교의 틀을 곧바로 벗을 수 없었듯이, 4년제 대학 승격이나 대학교로의 명칭 변화가 그에 걸맞은 실천을 바라 담보하지는 않았다(Lee, 2021, p. 232).”고 지적하였다. 여러 가지 낡은 경로의존적인 관성과 낙습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하지만 교육대학이 종합대에 편입되지 않고 독립적인 목적형 교원양성대학으로 존속함에 따라 미국 교사양성대학들이 겪었던 ‘불편한 동거(Labaree, 2020)’로 인한 압력들(전통적인 학문 분야 교수진의 냉대, 아카데미즘 규범에의 적응, 예를 들어, 연구와 실천 사이의 이중적이고 정신분열적 갈등과 연구 중시 문화 등등)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미국 교사양성기관의 겪었던 교사양성의 주변화, 약화, 피상화라는 불합리한 부작용을 상당 부분 우회할 수 있었다(Clifford & Guthrie, 1990; Goodlad, 1999; Lee, 2021).

V. 논의 및 결론

교사양성기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전해 오는 제도적 변천의 양상을 띤다. 미국의 교사양성기관의 역사는 대체로 사범학교(normal school)→사범대학(teachers college)→일반(다목적)주립 단설 단과대학(multi-purpose state college)→지역 주립대학교(regional state university)로의 비가역적(irreversible), 선형적(linear) 진화 경로를 따라 발전했다고 여겨지곤 한다(Herbst, 1989; Labaree, 2020; Lee, 2021; Null, 2009; Ogren, 2005, 2013; Schneider,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은 부분적이고 진부한 이해일 뿐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Labaree(2020, p. 30)는 “미국 교사교육과 전문직화의 공식적인 역사는 전통적으로 일종의 전승 행진에 관한 이야기들로 넘쳐나지만, 현실은 도전과 갈등으로 점철된 험난한(rocky) 역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 과정은 역사적 우연에 의한 결과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교사교육의 변천 과정을 전문화와 전문직을 향한 지나긴 십자군 여정 또는 진보의 행진으로 보는 것은 교사교육의 제도적 승격은 곧 진보, 다시 말해 교사교육과 교직의 질의 지속적, 필연적 개선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Herbst, 1989; Labaree, 2020; Lee, 2021; Ogren, 2013; Schneider, 2018). Ginsburg(1987)는 이같은 지나치게 기능주의 편향의 교사교육 역사를 비판하고 갈등, 투쟁, 저항 등에 주목하려는 역사-사회학적 관점에 착안하여 교사교육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as cited in Ogren, 2013).

Labaree(2020)는 미국 교사교육은 제도적 변천과정을 경유하면서 오히려 교사교육과 교양 양성의 전문적 지위와 입지는 극적으로 추락한 반면, 고등교육의 위계상에서 교사양성기관의 제도적 지위는 극적으로 상승하게 된 역설적이고, 비합리적인 결과가 수반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Herbst(1989)는 미국 교사교육의 변천과정을 전문화라는 이름으로 교사와 교사양성을 주변화하고 약화시켰으며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온 (중합대) 동경과 (교사) 배신의 역사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미국과 유사하게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교사교육의 변천도 사범학교→2년제 초급 대학 교육대학→4년제 교육대학교로의 일련의 제도적, 선형적 승격의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을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필연적인 진화와 개선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과정은 교사양성의 질과 교직의 전문화를 위한 일련의 체계적인 노력이었다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역사적 우연에 견인되고 추진된 것에 가까웠고, 이러한 제도적 형태 변화(metamorphosis)와 명목상의 변화가 그에 걸맞는 실천이나 변화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었다(Lee, 2021). 이러한 측면에서 Park(1997)은 교원양성기관의 변천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나라 초등교원 양성 정책을 둘러싼 신화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사양성기관의 제도적 변천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이해는 제도적 변천 과정을 비가역적, 필연적인 진화의 결과이자 개선으로 환원하려는 진부한 기능주의 일변도의 편협한 역사관에서 탈피하여 보다 균형있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리얼리티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Null, 2009; Schneider, 2018). 또한 선진국에서 교원양성기관이 중합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니 우리도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는 추세로부터 당위를 끌어 내리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극복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Kim et al., 2018; Lee 2021; Ministry of Education, 2021; Zgaga, 2013).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으로, 본 연구는 역사적 분석을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한 초등교원양성체제 개혁 시도 속에 은폐된 정책 담론과 프레임의 균열과 창조적 해체를 통해 성급하고 오도된 개혁의 추진을 교란함으로써(Horsford & D' Amico, 2015; Lee, 2021), 이를 둘러싼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의 순환의

단절을 통해 적어도 덜 편향되고 균형 있는 개선 방안을 구안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Schneider, 2018).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Cochran-Smith & Villegas(2015)는 교사교육의 역사 - 특히 대학과 고등교육기관 내 교사교육의 지위, 위상의 제도적 변천사 - 는 각 나라의 교사양성을 둘러싼 전제, 지향, 접근에 상당한 차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사교육 분야에서 역사적 연구와 함께 비교교육학적 연구가 미흡했다고 분석하고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청된다고 하였다. 교사교육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교사교육을 넘어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기관들 간의 제도적 위계, 계층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한 주제를 제공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더 풍성하게 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Ogren, 2013).

References

- Chung, T. S. (1991). *7·30 educational reform*. Yejigak. ㉮ 국문: 정태수(1991). **7·30 교육개혁**. 예지각.
- Clifford, G. J., & Guthrie, J. W. (1990). *Ed school: A brief for professional education*. Univ. of Chicago Press.
- Cochran-Smith, M., & Villegas, A. M. (2015). Framing teacher preparation research: An overview of the field, part 1.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66*(1), 7-20. <https://doi.org/10.1177/0022487114549072>
- Darling-Hammond, L. (2010). Teacher education and the American future.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61*(1-2), 35-47. <https://doi.org/10.1177/0022487109348024>
- Fraser, J. W. (2007). *Preparing America's teachers: A history*. Teachers College Press.
- Ginsburg, M. B. (1987). Teacher education and class and gender rel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historical studies of teacher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Foundations, 0*(2), 4-36.
- Gitlin, A. (1996). Gender and professionalization: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teacher education and unionism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Teachers College Record, 97*(4), 588-624.
- Goodlad, J. I. (1999). Whither schools of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0*(5), 325-338.
- Herbst, J. (1989). *And sadly teach: Teacher educ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in American culture*. Univ of Wisconsin Press.
- Horsford, S. D., & D'Amico, D. (2015). The past as more than prologue: A call for historica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29*(7), 863-873. <https://doi.org/10.1108/IJEM-05-2015-0062>
- Kim, B. C., Kim, K. S., Park, S. W., Song, K. O., & Lee, K. Y. (2018). *A study on reforming the teacher preparation and the teacher education system in S. Korea. The presidential Council of Education* ㉮ 국문: 김병찬, 김갑성, 박상완, 송경오, 이기영(2018). **교원양성 및 임용 체제 개편방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 Kim, K. S. (1999). *Educational historical-sociology*. Kyoyookbook. ㉮ 국문: 김기석(1999). **교육역사사회학**. 교육과학사.
- Labaree, D. F. (2020). *The trouble with Ed schools* (S. S. Yoo, M, J, Kim, B. Chung, & J. M. Lee Trans.). Parkyoung Story. (Original work published 2008). ㉮ 국문: Labaree, D. F.

- (2020). **교사교육의 딜레마** (유성상, 김민조, 정바울, 이정민 공역). 박영스토리. (원서출판 2008).
- Lee, H. G. (2021). *On being and becoming teachers in S. Korea*. Communebut. ㉮ 국문: 이혁규(2021). **한국의 교사와 교사되기**. 교육공동체 벗.
- Ministry of Education (2021). *A draft of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 training system for the future social environment*. ㉮ 국문: 교육부(2021).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 시안**.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500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Null, W. (2009). Back to the future: How and why to revive the teachers college tradi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60(5), 443-449. <https://doi.org/10.1177/0022487109344433>
- Ogren, C. A. (2005). *The American State normal school: An instrument of great good*. Springer.
- Ogren, C. A. (2013). The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teacher preparation in the united states: A synthesis, analysis, and potential contributions to higher education history. In M. B. Paulsen (Ed.),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pp. 405-458).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94-007-5836-0_9
- Ogren, C. A. (2021). Teacher education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 history of common good. *Teaching Education*, 1-16.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80/10476210.2021.1895106>
- Park, N. G. (1997). A exploratory study on elementary teacher preparation in S. Korea. Kyoyookbook. ㉮ 국문: 박남기(1997). **초등교원 양성 교육의 현주소**. 교육과학사.
- Schneider, J. (2018). Marching forward, marching in circles: A history of problems and dilemma in teacher prepar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69(4), 330-340. <https://doi.org/10.1177/0022487117742904>
- Zgaga, P. (2013). The future of European teacher education in the heavy seas of higher education. *Teacher Development*, 17(3), 347-361.